

월/요/광/장

강희숙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오로지 영어에만 달려 있다...

물론 버터 냄새 풀풀 나게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어교육에도 순서가 있다

들며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요, 교육 현안이 영어 능력이라는 인식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도 사담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다른 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

이다. 또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달란트(재능)'가 무엇인가를 알고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영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를 향상시키는 데 피나는 노력들을 할 터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있다면 계속해서 추월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의 외국인, 10만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그 2세들이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화하면서도 유창한 한국어 능력이 필수불가결한 일일 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말대로 그것이 고된 끝에 얻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론의 때서운 질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진정으로 열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며 일의 순서를 먼저 생각하였으면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민 공감하는 정부조직 개편 이뤄져야

전국의 행정학자들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광주일보사가 지난 25~26일 조선대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 등 행정학 전문가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52.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는 39.2%에 그쳤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이같은 부정적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8일부터 이뤄지는 국회심의 과정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조직 개편은 오히려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만만

치 않다. 특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의 일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5개 부가 모두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7.9%에 불과했다. 조직 개편안 상당 부분이 보완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나 양보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니만 옳다'는 식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반발과 논란만 불러 개편안 처리가 지연돼 국정외 파행으로 치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로 분명 옳은 방향이다. 그렇다 해도 그 기능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 자르듯 조직을 폐·통합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성숙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의 '변화·쇄신 공천' 주목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27일 "호남에서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에 대한 지지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을 시사한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호남이 80% 이상의 지지를 보여줬지만 마지못해 지지해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옳다고 본다. 지지멸렬한 범여권에 실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통합신당 후보를 선택한 호남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범여권에 시급한 것은 개혁과 쇄신이지만 그런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호남에 몰리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거물급 정치인과 전·현직 장·차관들까지 수도권 등을 외면하고 호남 출마를 준비하고 있

다. 호남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라고 한다. 정치인은 출마의 최우선 기준을 당선 가능성에 둘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범여권의 잠재가 뻗은 마당에 호남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통합신당에서도 죽을 각오로 뛰어야 야당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남 물갈이'라는 황금 지도부 인사 등이 수도권에 배수의 진을 치고 출마해야만 8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해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 정당이 호남에 안주해선 지역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호남 지지가 한나라당에도 뒤지고 있다는 여론 조사까지 나올 위기상황이다. 통합신당이 손 대표의 말대로 변화와 쇄신을 얼마나 이뤄낼 지 주목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한진. 대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담해역까지 확산되면서 피해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한 뒤 일부 피의자들을 기소한 상태다.

기고 김덕만.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유력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란 게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나 제한이 얼마나 높고 낮느냐에 대한 평가지수로 제약이 적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민 배상 위한 법률조언 최선.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배상문제도 위와 같은 특성과 연계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자. 국가들이 공히 청렴한 선진국이다. 위에 열거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07년 청렴도(CPI) 순위에서 20위권 이내다. 반면에 한국의 청렴도는 43위로 경제자유지수처럼 40위권에 처져 있다.

無等鼓. 2003년 홍콩의 유명배우 장귀룡(張國榮)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의 자살을 믿지 않았다. 장귀룡이 실제로는 살해됐고 경찰이 이미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들었다.

기초노령연금 산출방식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기준이 되는 재산의 산출 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일본선 여행일정 지연되면 보상 '신선한 충격'. 얼마전 일본 여행에서 신선한 경험을 했다. 아버지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스키 천국 북해도에서 이를 천후 도쿄로 갔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